

변하지 않는 기쁨의 법칙!

2월 7일

1과

본문말씀 사도행전 8:1~13

의술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사도행전 8:8)

주 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투구할 때, 사람들과 함께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축구 선수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골을 넣을 때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금메달을 목에 걸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쁨을 나눈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회당 지도자들은 스테반의 사역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8장은 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증인을 제거한 결과 그들의 뜻과는 오히려 다르게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결고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있나요? 하나님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루살렘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요?(1절)

1절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A.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외에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연결고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 사도행전 1:8절에 나오는 복음의 확장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4절)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A.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연결고리 예루살렘교회는 힘든 순간에도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전력투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전한 복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사마리아성으로 피신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6~7, 12절)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A.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고, 사람들에게서 붙었던 귀신의 나감과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대대적으로 마술사 시몬에게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연결고리 복음을 전하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4. 빌립의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8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A.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연결고리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흠어진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투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을 통해 복음전파를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6. 집과 학교,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A.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시 일주일에 한 명의 친구에게 복음편지 써서 전달하기, 믿지 않는 친구 리스트 작성하고 기도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저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교회는 충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눕니다. 이처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투구할 때, 사람들과 함께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월 14일

2과

본문말씀 사도행전 9:32~43

의술말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농르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사도행전 9:40)

주 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씻고 옷을 입으며 만남을 준비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공부할 책과 학용품을 준비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잠시 꺼 놓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9장의 주제는 '복음이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룻다와 옘바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연결고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나요?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33~35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 대 곧 일어나니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A.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아를 침상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본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연결고리 베드로는 애니아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옘바로 와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38절)

38절 룻다가 옘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A. 제자들과 옘바의 성도들은 최근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아의 치유 사건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가 죽자 장례를 연기하고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연결고리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옘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하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베드로는 읍바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40~42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읍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A. 베드로는 현장에서 아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무턱대고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보낸 후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시신에서 몸을 돌이켜 정반대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이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하자 다비다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연결고리 베드로는 ‘다비다쿰’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리다쿰’의 명령을 따라함으로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그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4.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는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마땅히 기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5.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집과 학교, 교회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6. 내 능력과 뜻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복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예시 아침에 눈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5분 기도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치유하고, 욥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앞서 치유의 기적을 행한 베드로에게는 수많은 눈이 집중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침착하게 모든 사람을 내보낸 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입견 OUT!!

본문말씀 사도행전 11:4~18

의율말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사도행전 11:9)

주 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십니다.

2월 21일

3과

마음의 문을 열며

많은 사람이 MBTI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ISTJ 유형의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며 현실적인 성격이고, ENFP 유형의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MBTI를 물어보며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짜 모습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선입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말씀 돋보기 본문인 11장은 10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반복하는 장입니다. 10장이 본론이라면, 11장은 결론인 셈이며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나요? 선입견을 가지고는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5~8절)

5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A.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11:7)”는 소리가 있었고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연결고리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다고 믿으며 특권의식에 젖어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9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A.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천하 여기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디로 베드로에게 선입견을 갖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는 이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를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15~18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A.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연결고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그들도 그 전에 믿고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으신 것입니다.

4. 베드로가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A.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 미워하는 친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달아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며, 복음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5. 예수님의 제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자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A.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아닌 '예'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선입견과 편견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주일설교에 나온 적용점 그대로 실천해보기, 친하지 않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입견 없이 먼저 저를 바라봐주시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선입견 없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고 여기며,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 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며 이방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절호의 찬스!

본문말씀 사도행전 13:13~25

의율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사도행전 13:23)

주 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월 28일
4과

마음의 문을 열며

‘쭉뻗쭉뻗, 우물쭉물, 데면데면, 부끄부끄’ 이는 십대가 복음을 전할 때의 느낌입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말씀 돋보기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13장은 또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바울이 데뷔하는 장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비디시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연결고리 복음을 전할 기회는 늘 주어지지만, 우리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눠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회당장들은 사람을 보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15절)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A. 바울은 선교 전략에 따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때 지정된 율법서와 선지서의 낭독이 있을 후 회당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을 향해 권할 말이 있거든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연결고리 바울과 바나바는 백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때부터 말하나요? 또한 바울은 족장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나요?(17절)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A. 바울은 족장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창세기 때부터의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창세기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뒤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23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A. 이 약속의 핵심은 한 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의 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 바울이 출애굽부터 다윗왕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바울이 출애굽부터 다윗왕까지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만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5.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요? 학교와 학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한 번 입을 떼는 것은 어렵지만, 입을 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자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A.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시 복음편지를 쓰며 복음에 대해 정리해보기, 복음에 대해 목사님 전도사님께 더 물어보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올 때 두려워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십대들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